

대형 유통사의 비극적인 자화상



연운열의
푸드톡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 한때 삼성물산의 저력과 영국 테스코(Tesco)의 선진 시스템을 결합해 '유통의 신화'를 썼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소유로 오래전부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로 적자의 수렁은 깊어지고, 부채비율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시장 관계자들은 쿠*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의 공세를 실적 악화의 1순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다. 홈플러스* 부실의 본질은 내부에서 시작된 '도덕적 해이'와 외국계 자본의 '수탈적 경영 구조'가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명줄은 고객의 신뢰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역사는 고객의 신뢰를 기만 한 사건들로 얼룩져 있다. 과거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경품 사기' 사건은 홈플러스* 내부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와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했지만, 정작 당첨자는 자사 직원이나 그 지인들이 차지하는 기막힌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고객이 경품 응모를 위해 기재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건당 수천 원을 받고 팔아치운 행태는 이 기업이 고객을 '동반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여겼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단순히 특정 임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흐르는 '성과 지상주의'와 윤리의식 결여가 만들어낸 암세 포였다.

홈플러스*의 비극을 완성한 또 다른 축은 재투자의 부재다. 영국 테스코 시절부터 현재의 사모펀드 체제에 이르기까지, 홈플러스*의 의사결정권자 대다수는 한국 유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히 외국계 고위 임원진과 대주주들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국내 유통 생태계 강화에 재투자하기보다, 해외 본사나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고질적인 영업손실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경영 자문료, 배당, 그리고 각종 금융 비용의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개연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매장 리뉴얼과 물류 시스템 고도화에 쓰여야 할 돈이 대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 발판으로 사용되면서, 홈플러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처참하게 노후화되어 버렸다.

현재 홈플러스*가 단기 재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입차)' 방식은 전형적인 시한부 경영의 단면이다. 자산을 매각해 당장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임대료 부담이라는 독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국내 유통 시장의 미래와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매각 가치를 높여되팔기'에만 몰두하는 외국계 자본의 시각에서 홈플러스*는 혁신해야 할 기업이 아니라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내야 하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익*프*스* 부문의 분리 매각 추진 역시 이러한 '쪼개기 팔기'를 통한 자본 회수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진다.

홈플러스*의 사례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본과 기업 경영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기업 윤리가 실종되고 재투자가 멈춘 조직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국내 소비자를 정보 판매의 대상으로 보고, 국내 점포를 자금 회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영방식은 결국 유통 공룡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기술사·칼럼니스트

6월 원유 협상이 던진 생존 과제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22.9kg)로 추락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주 소비층 감소, 지속되는 고물가, 그리고 Guanse 공세를 앞세운 가성비 수입 멸균우유의 습격까지 그야말로 국내 유통업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우유를 덜 마시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인 '음용유 중심'의 낙농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린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원유 가격 및 물량 협상은 유통계의 손익 계산을 넘어, 한국 낙농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원유 배분 구조, 즉 '88.5%의 굴레'를 어떻게 깨뜨리느냐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무려 88.5%는 흰우유나 가공우유 등 직접 마시는 '음용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묶여 있다. 치즈, 분유,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비중은 단 5% 남짓에 불과하다.

마시는 우유 소비는 매년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정작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용 원유는 공급받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다. 결국 유통업체들은 남은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면서도 정작 가공률이 25%대에 불과한 설비를 바라보며 막대한 보관 비용과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다.

역설적이게도 낙농 산업과 유통계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흰 우유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우유가 남아 돌아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음용유 쿼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6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낙농가와 유통계, 그리고 방관할 수 없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철 지난 '음용유 중심 쿼터'를 과감히 재설계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가공용 원유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tree6834@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음 4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귀하를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60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72년생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49년생 매사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1년생 고민하던 이성 문제가 해결의 길에 보입니다. 73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85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50년생 늘 명량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62년생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74년생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86년생 대중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51년생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63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75년생 도박은 인생을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87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바람끼는 절대로 안됩니다. 64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88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53년생 본인의 상황에 만족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좀 거대하고 행동하세요. 89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54년생 사소한 근심은 빨리 털어버리세요.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8년생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90년생 뒷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55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7년생 주변인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79년생 아래 사람들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91년생 여행은 고통입니다.



56년생 여행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92년생 뒷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7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입니다. 69년생 친구들과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1년생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93년생 집안에 반가운 경사가 생깁니다.



58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70년생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몸을 조심하세요.



5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71년생 지혜가 있다면 무해할 것입니다. 83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95년생 사원들의 단합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육신통(六神通)



불가에는 육신통(六神通)이 있다. 육신통은 흔히 말하는 초능력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신통력이나 신력이라고도 한다. 육신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여섯 가지를 일컫는데, 육신통은 주로 붓다와 그의 제자 아라한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으로 묘사된다. 역사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초월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석가모니 그 이전부터도 기세를 떨치던 브라만교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행자 중에서도 모종의 신통력을 가진 이들이 있었으나, 육신통 중 누진 통만큼은 오로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 즉 불교 수행자들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누진통은 번뇌를 완전히 여의었다는 것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순간이 되는 능력이자 힘이다.

요즘 초기불교적 교학과 수행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 그러하다. 육신통 중 누진통을 제외한 다섯 신통은 불교 수행자가 아닌 외도(外道) 수행자들도 사마타라 불리는 선정수행으로 증득 된다고 알려져 있다. 수행이 깊은 수행자 중에 다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본다든가,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한다. 선정수행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능력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들이 재가자에게 신통력을 보여주는 일은 수행의 목적이 맞지 않는 일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세속적인 것으로 굳게 한다고 하여 신통력 사용을 계율로써 엄금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에 패악을 끼치는 사이비종교의 교주들은 나름 신통에 근접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자칭 구원 주를 사칭하기도 하며 물질적, 정신적 지배를 하는데, 의외로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다. 신통에 대해 동경은 현재진행형인 듯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3	4		6		8		2
		2						
7						3	4	
	7	8			5	9		
1		3				6		8
		6	7			1	5	
	2	5						6
						2		
3	7		4			5	8	9



		3		5	4		6	2	8
		9					4		
8						6	2	9	
						2	3		6
	4				6				8
5		6	3						
	7	3	6						2
			9						4
2	5	8		1	4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미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7	2	1	5			
2	1	2	8	5	9	6	9	7	
9	5	7	1	2	6	9	2	8	
5	9	1	7	8	2	9	6	8	
8	2	9	6	2	5	5	5	7	1
7	2	6	9	1	5	8	2	9	
9	7	5	2	6	8	1	9	2	
1	9	2	5	9	7	2	8	6	
2	6	8	2	9	1	7	5	5	

5	9	2	7	1	6	8	9	2	
9	7	8	2	1	6	9	5		
2	1	6	8	9	5	2	2	7	
7	2	1	6	8	5	9	2	9	
6	8	9	5	2	1	7	2	9	
9	9	5	2	6	2	7	8	1	
2	6	2	9	5	7	9	1	8	
1	5	7	9	2	8	2	6	9	
8	2	9	1	7	5	2	5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